

칙칙한날의 축복

어제는 며칠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마음이 조금은 칙칙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를 면회하기로 되어있어 나는 칙칙한 날을 꾸짖으며 애써 나의 기분을 화사하게 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려하는 찰라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그분의 아는사람의 아이가 몹쓸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도와야할지 알지몰라 안스럽다며 전화가 온것이다. 그분의 전화의 내용은 지면으로는 차마 할수없는 끔찍스러운 일이었다. 당한 어린아이가 감수하기에는 평생을 걸려도 회복되기 힘든 기가 막힌 일이었던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고 무너져 내리는것같았다. 하던 화장도 되어지지가 않고 마음이 놀리고 무거워 어찌할줄 모를정도였다. 그 아이의 받은 충격과 절망과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고 부모와 가족들의 분노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내게 느껴져 나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 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며 나는 나를 추스르며 약속된 정신병원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또 전화다. 이번엔 딸아이다. “엄마 나 좀 데려가 나 차 사고 났어”라는 힘없는 목소리다. 이미 다른 전화로 가슴이 내려앉을 대로 내려앉은 내 가슴은 철렁소리도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본다. 목소리를 보니 다친것같지는 않았고…

..그러나 딸은 그런 엄마의 반응이 이상했을거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는 그런 나를. …..그렇게 어제는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지나갔다. 내가 아는 이웃의 하늘이 무너지는 비극의 일이, 내가 만나는 피상담자인 15 년여에 걸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 가족의 아픔의 일이 , 다행이 다치진 않은 나의 큰딸의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다시피한 대형사고 의 일이.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본다. 내게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인생에서 당면하는 수천가지의 일들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산다. 그것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한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여 자신을 상처내고 남을 상처내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은 흔히 “왜,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되먹었지”라며 상대에 대해 분노하며 기분나빠 하는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상담)을 보며 그들은 단지 지난 세월동안에 자신에게 부딪쳐왔던 감당하기힘든 일들과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살았던 그런것들이 그들의 성품이 되어진것뿐이다. 그것을 여과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연약과 부족한것들을 고치고 아름답고 강하게 만드는 노력과 힘이 부쳐 그저 반응만 하고 살다보니 그런 성격과 성품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 그들을 질책하기 보다는 그렇게 지아왔어야 하는 그들의 삶을 아파해주고 이해하며 이제라도 극복 해나갈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필요한것뿐이다. 어제 일어났던 마음을 놀리게 하는 여러가지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우리에게 계속 걸어가야한다는 엄숙한 명령을 한다. Show must go on 처럼 .무릎에 힘을 주어 그렇게 한걸음씩,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에 감사함이 들기시작한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슬픔이 분노가 증오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수 있는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한다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것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를 사소하게 오해하고 험담하는것이 있어 마음이 아픈가? 나의 진실은 이것인데 그것을 상대가 지금은 알지못해 속상하고 안타까운가? 내 자녀가 부모인 나의 깊은 마음을 알지못하고 때때로 곤란한 태도를 보여 속상하고 화가 나는가? 청춘의 남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아파하고 있는가? 이런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어질수있는 일들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자녀나 가족의 정신질환, 자녀의 평생에 잊지못할 비참한 사고, 그리고 불치병등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순간 순간 감사해야하는 빛을 인생에 지고 산다는 깨달음을 받은 어제는 칙칙한 날씨에 비해 내영혼에 강하고 밝은 빛으로 깨달음을 받은 또다른 축복의 날이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음에 다시한번 감사한다.